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

제38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2020. 9. 3.(목) 14:00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충청북도교육청
Chungcheongbuk-do Office of Education

**존경하는 164만 충북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박문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소통으로 공감받는 의회, 도민이 주인인 민의의 전당을 목표로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재확산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상황 속에서도 충북교육이 굳건히 나아갈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고, 아낌없는 신뢰와 따뜻한 관심을 보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제3차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수정교부된 보통교부금, 한국형 뉴딜사업과 관련한 국고보조금, 자치단체로부터 전입된 고교무상교육 재원 등과,

상반기 세출예산 예비결산 결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과다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을 감액·조정한 재원을 바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을 위한 중점 사업 분야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학교 방역물품 지원, 등교수업교육활동 지원인력 배치 등 코로나19 예방과 대응을 위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한국형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온라인교육 인프라 구축,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운영 등 미래교육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교육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셋째, 고1 무상교육 2학기 조기 시행 예산과 학생이 주도하는 미래형 교육공간 조성을 위한 행복·감성 뉴스페이스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7,87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약 2.7% 감소한 78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804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64억 원을 감액하고 기타이전수입 15억 원, 자체수입 7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1,101억 원, 평생·직업교육 57억 원을 감액하고 교육일반에서 37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분야별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용 292억 원, 교육복지지원 235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24억 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642억 원, 평생교육 57억 원, 직업교육 9백만 원, 기관운영관리 37억 원,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1억 원을 감액하고 교수-학습활동지원 87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5억 원, 교육행정일반 392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2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제출한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각종 교육사업 예산들을 정리하여 미래교육환경 조성에 재투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연도 내 예산 집행을 통해 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존경하는 박문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갑작스럽게 찾아온 코로나19가 우리 생활의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충북 교육은 우리가 마주한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고자 합니다. 미래의 주역이자 변화의 주체인 우리 아이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주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충북 미래 교육을 위한 주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3일

충청북도교육감 김 병 우